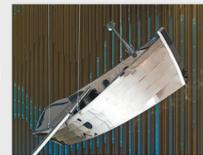


“아트캠프 즐기세요”...시그니엘 부산, 개관 2주년 이벤트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부산이 개관 2주년 이벤트를 진행한다. 로비에 설치한 미술품 ‘플라잉 보트’(사진) 인증샷 이벤트로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롯데호텔 리워드 회원 전용 이벤트로 시그니엘 부산 6월 투숙객 중 홈페이지 예약한 고객 대상이다. 응모 기간은 30일까지며 경품으로 시그니엘 부산 숙박권 등을 제공한다.



심상치 않은 암호화폐 폭락세에 투자자 ‘공포’

‘2만 달러’ 붕괴...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나

(약 2600만 원)

암호화폐 시장의 심상치 않은 폭락세가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 등이 시장을 짓누르자, 위험 자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루나 사태 등 암호화폐 시장의 잇따른 악재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불황에 위험자산 심리 위축
비트코인, 지난해 11월 대비 70% ↓
심리적 저지선 무너져...급락 우려
루나 사태 등 악재로 불안감 커져
“옥석 가리기”...공정의 목소리도

●2500만 원선 무너진 비트코인

암호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심리적 저지선이라 불리는 2만 달러(약 2600만 원)가 붕괴됐다.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19일 오후 1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15만1000원 대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최고가(8270만 원) 대비 약 70%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알트코인의 대표주자인 이더리움 역시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 125만6000원 대에 거래됐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 최고가(580만 원) 대비 약 80% 정도 하락한 수치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심리적 저지선인 2만 달러가 붕괴된 만큼, 공포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폭락은 예상을 웃도는 미국의 인



불황을 경고하는 거시경제 환경과 시장의 잇따른 악재가 암호화폐의 심상치 않은 폭락세를 야기하고 있다. 2400만 원대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기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지원센터 전광판. 뉴스스

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한국시간) 열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을 밟는 등 불황을 경고하는 거시경제 환경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 영향이 크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잇따른 악재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5월 루나 사태에 이어, 최근 각각 미국과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 업체 셀시우스와 바벨 파이낸스에서 ‘코인런(투자자 대규모 이탈 사

태)’ 발생해 인출 중단을 선언하자 암호화폐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암호화폐 시장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 애로우스 캐피탈(Three Arrows Capital, 3AC)이 자산 매각과 구제금융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급랭시켰다.

●고민 깊어지는 투자자들

이처럼 연이어 터진 악재 속에 비트코인의 심리적 저지선마저 무너지자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루나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불신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끝났다”는 부정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 투자자는 “암호화폐는 워낙 변동성이 큰 만큼 폭락장에 사서 회복장에서 파는 루틴이 있었다. 예전에는 장기적으로 보고 존버(이익이 날 때까지 버티다)하면 다시 상승할 것이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아무래도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조기 은퇴 ‘파이어족’을 꿈꾸며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진짜 팔았이구나 싶어 손절하고 이 바닥을 떠난다”며 “아직 출근할 수 있다는 직장인이라는 게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아직도 공정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이들도 있다. 한 투자자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 및 관련 업체만 살아남는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단 옥석가리기에 성공하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암호화폐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여전히 장기적 낙관론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싶다”며 “지금 폭락장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기에는 망설임이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고대 산학협력단, 국제약품과 기술이전 협약 “공동연구한 차세대 항혈소판제 기술, 결실 맺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약품 등과 항혈소판제 관련 기술이전 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심혈관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 가운데 1위다. 항혈소판제는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치료 전략 중 하나로 압도적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 및 문제점이 있어 차세대 항혈소판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홍순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김충호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와 정중화 경북대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이다. 기존 항혈소판제 대비 항혈소판 작용은 강화하고 출혈 위험을 낮추고 안전성을 제고한 획기적인 차세대 항혈소판제 개발 플랫폼 기술이다.

홍순준 고려대 교수는 “2014년부터 진행한 공동연구가 결실을 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학협력단과 국제약품이 동반 성장하며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술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사업의 지원을 받아 특허출원 및 마케팅을 진행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야놀자클라우드, SPC삼립과 간편식 공동사업 맛집 빅데이터 활용...인기 매장 레시피로 상품 개발



김중윤 야놀자클라우드 대표(왼쪽)와 황중현 SPC삼립 대표.

AI기반 SaaS(Software-as-a-Service) 기업 야놀자클라우드가 종합식품기업 SPC삼립과 손을 잡았다. 양사는 야놀자클라우드의 푸드테크 솔루션과 SPC삼립의 식품업계 노하우를 결합한 ‘줄서는 맛집’ 간편식을 선보인다. 맛집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매장의 고객 방문 트렌드를 분석하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간편식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이달 중 서울 신사동 맛집으로 유명한 숯불 닭갈비 전문점 ‘효계’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첫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간편식 사업 체계 구축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제휴점을 대상으로 SPC삼립 자회사인 ‘SPC GFS’와 연계한 식자재 공급망 확대에 나선다. 또한, 야놀자클라우드의 글로벌 푸드테크 멤버사 구스토엑스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F&B 시장 공략도 검토한다.

야놀자클라우드의 멤버사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을 통해 국내외 오프라인 식품사업장을 대상으로 푸드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롯데홈쇼핑, 온라인몰 PB ‘올타라이프’ 론칭



롯데홈쇼핑이 온라인몰 자체 브랜드(PB) ‘올타라이프’를 론칭했다. ‘ALLTA(소비자를 위해 좋은 제품을 만들다)’와 ‘LIFE(일상)’의 합성어로,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기준이 될, 사소하지만 쓸 만한 물건’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첫 상품은 캠핑 물티슈(사진)로, 장당 약 1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와 모노톤의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향후 생활용품과 주방용품 전반으로 상품군을 확대해 종합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 “경영시스템 개선해 기업가치 극대화”

SK그룹, 2022 확대 경영회의 개최
기존 파이낸셜스토리, 기업가치 부족
“현재 사업모델 탈출하는 방식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위커킨 서울에서 열린 ‘2022년 SK 확대경영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 스토리와 경영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주문했다.

SK의 파이낸셜 스토리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기존 재무 성과 뿐만 아니라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고객, 투자자, 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내 성장을 가속화 하자는 전략이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17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위커킨 서울에서 열린 ‘2022년 확대경영회의’에서 “현재 만들어 실행하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는 기업 가치와는 연계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기

업 가치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파이낸셜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기업 가치 기반의 새로운 경영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 가치는 재무 성과와 미래 성장성과 같은 경제적 가치(EV) 외에도 사회적 가치(SV), 유무형의 자산, 고객 가치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이 중 어떤 요소를 끌어올리고, 어떤 요소에 집중해 기업 가치를 높일지 분석해, 이해 관계자의 더 큰 신뢰와 지지,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 스토리를 다시 구성해 보자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파이낸셜 스토리 등 경영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위기 극복은 물론 기업 가치 제고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의 사업 모델이나 영역에 국한해서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벤처마케팅을 할 대상 또는 쫓아가지 않을 대상을 찾거나 아니면 현재의 사업 모델을 탈출하는 방식의 과감한 경영 활동에 나서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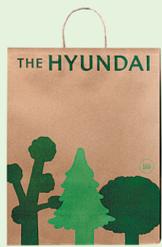
SK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관계사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 시스템 개념을 그룹의 경영철학이자 실천 방법론인 SKMS(SK Management System)에 반영하는 등 그룹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백, ‘100% 재생용지’ 친환경 쇼핑백 전면 도입

폐지 수거 등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현대백화점이 20일 전국 16개 점포에서 100% 재생 용지로 제작한 친환경 쇼핑백(사진)을 전면 도입한다.

매년 약 8700톤씩 나오는 포장 박스와 서류 등을 모아 쇼핑백 제작에 사용했다. 폐지 자체 수거와 재가공을 위해 자원 순환 시스템도 구축했다. 기존 쇼핑백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 약 1만3200그루(약



2000톤)를 보호하고, 약 329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친환경 경영 강화 일환으

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도 나선다. 백화점 내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종이컵 뚜껑과 물티슈를 재활용과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는 “향후 아예 인크가 필요 없는 쇼핑백 개발 등 친환경 경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